

제17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우리 사회 여성지도력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한 한국여성지도자상이 올해로 17회를 맞았습니다. 여성권의 향상에 헌신해온 여성지도자를 시상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The 17th KOREA WOMEN'S LEADERSHIP AWARD



대상 조형 한국여성재단 고문



젊은지도자상 장혜영 다큐멘터리 감독

2019년 4월 16일(화) 오후2시, 전국은행연합회관



문의 02-774-9702

한국 YWCA

2019년 3월호
March
Vol.558

특집 3.1운동 100주년

3.1운동은 청년여성들의 투쟁으로 가능했다
한국교회, 3.1운동정신 회복해야
3.1운동 100주년 한국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다짐

이달의 현장

후쿠시마 8주기 '핵으로부터의 탈출' 나비 퍼레이드

여성

#미투의 완성은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한다

평화

한반도 평화체제 돌파구 찾기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관악구청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1996년 7월 ‘어머니의 마음을 북한 어린이에게’로 시작



1997 북한분유보내기



2004 북한어린이돕기 거리캠페인



2013 북한어린이돕기 거리캠페인



YWCA 북한어린이 분유 저금통 모음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은 1980년대 시작된 평화·통일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982년 ‘사람과 평화의 일꾼으로 삼으소서’를 주제로 전국정오기도회와 더불어 북한YWCA 재건운동 등을 펼치며 평화운동에 주력하였다.

그러던 중에 1990년대 중반 북한은 큰 수해와 가뭄으로 고난의 행군 시대로 접어들었다. 수많은 동포들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 굶주림의 고통을 겪게 되면서, 한국YWCA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분유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1996년 7월 19일 ‘어머니의 마음을 북한 어린이에게’라는 표어를 내걸고 시작되었으며, 정치적 상황을 떠나 순수한 기독교적 사랑과 인도주의 정신을 발현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전국 53개 회원 YWCA와 일반 시민, 어린이, 교회들이 참여하였고, 북한 어린이 1만 명을 위한 분유 10톤의 목표액을 넘는 10톤 3,284 kg을 모금하였다. 이 금액은 다음 해인 1997년 3월에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전달되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총 25톤(당시 약 1억원)의 분유를 보냈으며, 2000년 12월부터는 ‘북녘 동포 겨울나기 사랑의 내복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해 2001년 성인 및 어린이 내복 11,360벌(약 5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후 이 운동은 제주YWCA의 감귤지원, 동부지역위원회의 쌀 국수 보내기운동, 연합회의 학용품 및 사랑의 내복보내기, 의약품보내기 운동 등으로 확대되어 200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잠시 침체기였던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은, 2011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에서 평화나눔운동을 YWCA 중점운동으로 채택하면서 재점화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내 식비의 10분의 1을 북한어린이와 함께’라는 슬로건은, 생활의 십일조 정신과 사회적 공계 및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평화 나눔의 가치를 담고 있다. 52개 회원YWCA, 어린이집, 각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뜻 있는 개인 회원들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룡천군 탁아소에 매월 분유를 보내고 있다.

2019. 3 한국YWCA



표지이야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 나비퍼레이드는 1,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총 8.1km 행진을 했다. (광화문 거리를 걷고 있는 연합회와 회원Y 활동가의 모습.)

2019년 4월 주요일정

4월 1일~2일
전국 사무총장 역량강화교육

4월 16일
제 17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4월 18일
김현자 명예연합위원 1주기
2019 제 1차 길위의 평화포럼

4월 25일
전국 회장단협의회

4월 25일~26일
전국Y틴 간사워크숍

4월 30일
전국 성평등운동 담당자 워크숍

제55권 제2호 통권 558호

2019년 3월 27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김민주·김은주·백수경·이경순

이은혜·이하나·정선경·조한나

편집 배정미·이주영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생명의 봄기운 가득한 한반도를 꿈꾸며 | 장미란
- 05 **말씀 묵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 장운재

특집 3.1운동 100주년

- 06 ① 3.1운동은 청년여성들의 투쟁으로 가능했다 | 윤정란
- 08 ② 한국교회, 3.1운동정신 회복해야 | 정경일
- 10 ③ 3.1운동 100주년 한국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다짐 | 이숙진

- 12 **평화** 한반도 평화체제 돌파구 찾기 | 최수산나
- 14 **여성** 미투와 선거제도 개혁 | 권수현
- 16 **이슈** 서울권 총여학생회 전멸 | 김민주
- 18 **청년토크** 20대가 생각하는 페미니즘 운동 | 대학·청년Y

- 20 **이달의 현장 ①** 제63차 여성지위위원회(CSW63) | 김예지
- 22 **이달의 현장 ②** 후쿠시마 8주기 '핵으로부터의 탈출' 나비 퍼레이드 | 최지영
- 24 **회원YWCA 활동현장 ①** 전국 탈핵캠페인 | 편집실
- 26 **회원YWCA 활동현장 ②** 교회 언니들의 불금파티 | 김예리
- 28 **회원YWCA 활동현장 ③** 전국 3.8 여성의날 이모저모 | 편집실
- 30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 <그린북> | 이윤숙
- 32 **연합회 소식**
- 37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한국YWCA 논평**
- 38 **회원YWCA 소식**
- 47 **하나님의 형상 여성, 우리 온라인에서 만나다**

생명의 봄기운 가득한 한반도를 꿈꾸며



장미란
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

봄이 찾아 왔지만 미세먼지 가득한 뿌연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화창한 봄날 맑은 하늘을 보면 이게 웬일이냐 싶습니다. 그저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미세먼지가 최고조에 달할 무렵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랜 불신을 극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31 운동 100주년과 북미정상회담의 좋은 결과가 하나로 만나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가 다시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려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어느 쪽을 비판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 평화, 정의, 이 세 가지 가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위협이나 도발은 더 큰 위협과 도발을 부릅니다. 현실 정치가 냉혹한 전략적 경쟁이라고 하지만 역사에는 어떤 번쩍이는 섬광처럼 '정의의 숨결'이 개입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정의의 숨결'은 우연히 불어오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치와 평화의 가치를 심고 정성들여 가꾸는 사

람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가 '정의의 숨결'로 자라나 어느 날 역사에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막막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시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워 생명 가치와 평화 가치라는 씨앗을 정성스레 심을 때입니다. 싹이 좀 더디게 나올지라도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따뜻한 눈길도 보내면서 끈질기게 사랑으로 버텨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뼈아픈 분단의 시절을 살아오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몸을 일으켜 평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디 가도, 돌아가도, 비틀거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꿈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뿌린 평화의 씨앗은 어떤 고비를 만나더라도 싹을 드러내고 잎이 자라고 꽃을 피워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라는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겨울 땅을 뚫고 있는 힘을 다하여 솟아오르는 봄의 어린 새싹들을 들여다보면 연약한 생명의 강한 힘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도 생명의 새싹들이 촉촉하게 솟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도 푸릇푸릇한 생명의 봄기운이 가득 차오르기를 고대합니다.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윤재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실장

고린도전서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성서를 관통하는 대주제입니다. 시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하나님의 숨씨와 작품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환하게 빛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바울 서신인 고린도전서 8-10장에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시장에서 물건을 사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는 지 오래된 신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상관치 않고 먹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대로,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따지지 말고 무엇이든 다 먹으라고 합니다. 불신자가 차려 놓은 음식도 양심을 따지지 말고 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라고 말해주면 그것은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사에 올린 음식이 '아직'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유'와 '연대', '지식'과 '배려'의 변증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유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스스로 제한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연대성이요 책임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크고 높은 자들의 영광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낮고 약한 자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의 유익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사랑과 배려'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고린도전서 8:1b-2) 우리도 바울처럼 '사랑이 깊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배려의 성숙한 삶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YWCA가 되길 바랍니다. 🌱

3.1만세운동은 청년여성들의 투쟁으로 가능했다



3.1운동-여성

윤정란

서강대 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

1919년 3월 1일, 서울과 평양을 비롯하여 진남포, 안주, 선천, 의주, 원산 등 7개 도시에서 독립선언서가 일제히 낭독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독립만세를 외치는 행진은 계속되었다. 독립만세 행진은 전국에서 일어났다. 독립선언과 독립만세 행진은 곧바로 해외로 확대되었다. 중국 상하이, 룡징, 미국 필라델피아 등 곳곳에서 한인들은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거기에는 어린 여학생, 교회부인들, 간호사들, 기생들, 나이 많은 할머니 등 직업, 나이 상관없이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였다. 그들 대부분은 청년여성들이었으며 특히 기독교 여학교 학생들은 전국 곳곳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3.1만세운동 당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한국 최초의 여기자로 활동했던 최은희는 “우리 여학생들은 기고만장해서 목이 터져라 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다”며 당시의 감격스러웠던 장면들을 회고했다.

만세군중은 재동 네 거리에서 패가 갈려 동서로 나뉘었다. 나는 경복궁을 향해 가는 대열을 따라다... 허 두루마기에 제 일고보 모자를 쓴 남학생이 권련을 빨고 서 있었다. 나는 경총 뒤면서 보기 좋게 뺨을 한 대 갈겼다... 우리 여학생들은 기고만장해서 목이 터져라 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대한독립만세, 대한제국만세, 조선독립만세! 군중들의 구호는 일정치 않았다.

평양 기독교여학교에 다니던 몸집이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던 여학생 마리아는 독립선언서를 한 부 얻은 후 만세를 외치는 다른 여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평양시 중심가로 달려갔다. 마리아는 신호동 기둥 위로 올라간 후 아래의 군중들을 향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경찰이 나타나서 이를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일본 경찰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독립선언서를 읽었다. 이에 분노한 일본 경찰은 총 끝의 대검으로 마리아의 팔을 마구 찔러댔다. 마리아는 기둥에서 떨어졌고 한쪽 팔이 약간 절단되었다. 일본 경찰은 땅에 굴어 떨어진 독

립선언서를 빼앗으려 했으나 마리아는 왼쪽 손을 내밀어 재빠르게 다시 그것을 주워 든 후 비틀거리는 발로 버티며 약하고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다시 읽었다. 일본 경찰은 이번에는 마리아의 왼쪽 팔을 대검으로 다시 찔렀다. 이 장면은 평양에서 한 외국인에 의해 포착된 것이었다.

3월 1일부터 시작된 여학생들의 만세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개되었다. 서울에서는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경성여고보, 숙명여학교, 평양에서는 승의여학교, 원산에서는 진성여학교와 루씨여학교, 선천에서는 보성여학교 등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어 성진 보성여학교, 함흥 영생여학교, 함경도 순천 일신여학교, 개성 호수둔여학교, 해주 의정여학교, 아산 백암리 영신학교, 천안 입장 광명여학교, 대구 신명여학교, 공주 영명학교, 전주 기전여학교, 마산 의신여학교, 부산 일신여학교, 광주 수피아여학교, 목포 정명여학교 등의 여학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여학생들은 만세운동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한 기독교 여학생은 3월 10일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과 파리평화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그 편지의 일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저희 여학생들은 수치와 모욕적인 언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아 달라고 어디에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요?

이나라의 백성들은 자유를 갈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 여학생들을 비롯한 조선의 남녀노소는 고통스러운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곳곳에서 조선의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조선의 독립에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일본의 무자비한 박해와 부당한 대우를 멈춰 주십시오.


3.1만세운동은 어린 여학생뿐만 아니라 기녀들도 함께 하였다. 2019년 2월 27일 수원박물관에서 개최된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여러 지역에서 많은 기녀들이 참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안성 기녀 송계화, 고비연, 변매화, 이봉선, 강봉화, 수원에서는 김향화, 서도홍, 이금희, 손산홍 등을 포함하여 30여명 이상의 기녀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하였다. 해주에서도 해중월, 벽도, 월희, 향희, 월선, 화용, 금희, 채수 등의 기녀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다. 해주 기녀들은 독립선언서를 직접 구하지 못하자 직접 독립에 관한 글을 지어 5천장을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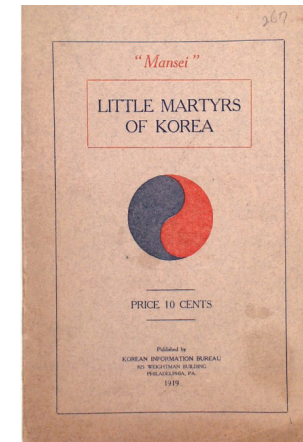
한 후 대나무 깃대에 직접 만든 태극기를 꽂고 태극 수건을 쓰고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통영에서는 정막래, 이소선 등을 비롯한 기생들은 기생단을 조직하여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청년여성들은 만세운동의 주도에 그치지 않고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전국적인 항일여성단체를 조직하였다. 평양에서는 대한애국부인회, 서울에서는 대한민국애국부인회가 조직되었다.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이유로 체포된 많은 청년여성들은 여성으로서 감당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였다. 이러한 고문 때문에 이후 정상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청년여성들도 많았다.

3.1만세운동은 전 민족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들에게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청년여성들은 3.1만세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자신들이 민족의 주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였다.

청년여성들은 이후 청년여성들은 국내외 일천오백만 여성들의 일치와 단결을 위한 여성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여 “전 세계부녀의 해방과 전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동분투하기로” 한다고 외치면서 독립운동에 나섰다. 그 독립은 나라의 독립과 여성으로서의 독립을 의미하였다. 



한국의 어린 순교자들



민족대표33인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장 3.1운동 100주년 한국 그리스도인 현장 준비위원

‘식민 조선과 Hell-조선의 그리스도인

남강 이승훈은 1919년 3.1 독립운동 당시 그리스도인 지도자 중 하나였다.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에 가까운 16인이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교가 중심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 과정에서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현실 정치에는 무관심하고 내세의 천국에만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았으나 보다. 민족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이승훈이 예언자처럼 외쳤다.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겠는가?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만 천당에서 내려다보면서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승훈과 같은 예언자들의 외침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해 내내 지속된 전국적 만세 시위에서 가장 많이 체포되고 투옥된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교는 민족의 희망이었다.

그로부터 100년 후,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은 한국사회를 ‘헬-조선’이라며 비판하고 절망한다. 현실이 그런데도 살아서는 탐욕의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는 영생의 천국을 누리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 그럴수록 지옥 같은 세상을 외면하고 천당만 욕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꾸짖었던 이승훈의 외침이 다시 더 크게 들리는 것만 같다. 그 외침을 듣고 응답한 그리스도인들이 3.1독립운동 99주년을 앞둔 2018년 1월 15일 한 자리에 모였다.

무엇으로부터 독립할 것인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YMCA, YWCA의 그리스도인 활동가들과 학자들이 함께한 첫 모임의 화두는 1919년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외세와 봉건질서로부터의 독립을 열망했다면 2019년의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독립할 것인가?”였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함께 공부하고 토론했다. 먼저 <28독립선언>과 <3.1독립선언>을 다시 읽으면서 그 뜻을 새롭게 해석하고 성찰했고, 3.1정신을 계승하고 확장한 1973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과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3.1 운동 일러스트

도 살펴보았다.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배우면서 3.1독립운동은 100년 전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100년 동안 이어져온 연속적 사건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지양해야 할 낡은 질서와 지향해야 할 새 문명을 탐구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탐욕과 경쟁을 삶의 원리로 하는 신자유주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과제를 공유했고, <3.1운동 100주년 한국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다짐>(이하 <고백과 다짐>)에 담을 열 세 가지 사회적 과제를 성찰했다. 그것은 ‘행복’, ‘공동체’, ‘다양성’, ‘장애인’, ‘여성’, ‘청년’, ‘교육’, ‘경제정의’, ‘생태’, ‘시민사회’, ‘한반도의 평화’, ‘세계평화’, ‘죄의 고백’의 대안적 가치였다.

함께 만드는 <고백과 다짐>

<고백과 다짐> 작성 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참가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방식을 실현했다는 점이다. 누구 한 사람이 전체 초안을 만들고 그것을 토론했어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붙들고 씨름해 온 사회적 문제나 과제를 바탕으로 만든 초안을 함께 토론하며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마치 다른 모양과 색상의 작은 조각이 모여 하나의 모자이크가 되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특수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보편적 가치의 이야기로 모아졌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학자들만이 아니라 NCKK, YMCA, YWCA 현장 활동가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슴으로 소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통하며 고백과 다짐의 이야기를 구성했다는 점이다. 또한 <고백과 다짐> 초안 작성자의 절반이 여성이었고, 토론 참여 세대도 20대에서 50대까지 청·장년이 고르게 함께했다. 사용하는 언어도 ‘선언조’보다는 ‘일상’의 언어이기를 애썼다. 한마디로 “모든 이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고백과 다짐>은 ‘모두’의 집단지성과 감성으로 함께 만들어진 것이다.

‘결과가 아닌 시작’

<고백과 다짐>의 마지막은 “죄의 고백”이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책임 있게 걸어오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개신교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의 19.7퍼센트를 차지하는 최대 종교가 되었다. 그 통계는 우리에게 자공심보다는 죄책감을 갖게 한다. 인구의 ‘1퍼센트’에 불과했음에도 민중의 희망이었던 100년 전의 그리스도교를 기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19.7퍼센트’는 아직도 부족한 숫자인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희망은 ‘33인’이 아닌 ‘사천여 명’의 그리스도인과 시민이 역사의 주체로서 <고백과 다짐>의 뜻을 함께하며 서명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고백과 다짐>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다. <고백과 다짐>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으로부터 독립할 것인지, 어떻게 독립할 것인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데 마중물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작은 소망이다. ✞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가?

<3.1운동 100주년 한국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다짐> 선언 요약

이숙진

연합회 Y아카데미 위원 · 여성신학자



3.1 독립선언서

3.1운동 백주년을 맞아 YWCA, YMCA, NCCK의 활동가와 학자들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가”를 질문하며 <3.1운동 100주년 한국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다짐>을 만들었다. 아래는 선언문의 내용 요약이다.

행복한 공동체 민중들을 압박하던 식민주의는 이제 신자 유주의의 옷을 입고 무한 경쟁과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있다. 백 년 전 자주와 독립을 위해 교회가 함께 했듯이, 지역마다 넘치는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서로가 함께’라는 교회의 이름처럼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서로 지지하면서도 각자의 힘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대와 자립’의 공간을 만들자.

다양성과 장애인 “모든 사람이 제 인격을 올바로 가꾸어 나갈 권리”를 선언했으나 오늘 이 땅의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을 가꾸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과 학교를 혐오시설로 여겨 기피한 탓이다. 장애인 외에도 나와 다른 종교, 사상, 성향을 가진 이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사라지고 있다. 백 년 전 교회는 ‘다른’ 종교인들과 연대하여 제국주의라는 ‘틀림’에 저항했으나 오늘날 교회는 ‘다른’ 이에 대한 혐오를 방관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다양한 모습 그대로를 존중함으로써 ‘다름’을 적극 포용하고 ‘틀림’에는 단호히 저항하는 교회를 회복해야 할 때다.

여성과 청년 ‘미투’와 ‘위드유’ 운동으로 한국사회에 편제

한 여성혐오의 민낯이 드러났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불편한 용기’가 성평등 사회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열 것이다. 3.1운동의 동력이 청년이었듯이, 오늘날 청년도 곧 도래할 한반도의 평화의 길잡이로 앞장 설 일이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꿈꾸던 3.1 선언은 우리의 오래된 미래다.

교육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옛 성현의 물음에 청소년들은 ‘죽고 싶다’고 답한다. 기미선언은 “억눌리고 오그라들고 사그라진 양심과 위엄과 체면을 일으켜 세우고 각 개인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 필요한 일”이 독립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양심, 위엄, 체면, 인격 함양은 뒷전이고 더 많은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치는데 집중한다. 더 늦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멋진 꿈을 꾸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따뜻한 사람을 길러낼 교육을 모색하자.

경제정의와 생태정의 백 년 전, 침략주의와 강권주의 아래 민족의 생존권이 심히 훼손되었으나 오늘날엔 비정규직, 하청업자, 실업자 등 민중의 생존권이 몹시 위태롭다. 안

정된 일자리의 확충과 교육, 의료, 주거, 연금 등 복지정책은 경제정의 수립의 필수조건이다. 오늘날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롬 8:22) 지구적인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고백한다. 이제 만물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 냥 착각하는 인간중심적인 신학과 교리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숙고할 때다.

민주주의/시민사회 민족독립의 꿈은 단지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 건설이었다. 이 꿈의 실현을 위해 공공성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책임적 각성이 요청된다.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켜 주권재민”의 나라를 위한 역사적 책임에 충실할 때 3.1정신은 완성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 한국전쟁은 이웃과 친족끼리 증오하고 학살한 ‘작은 전쟁들’이었다. 전쟁의 상처는 트라우마가 되어 민주, 인권, 평화의 걸림돌이 되었다. 다행히도 최

근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화를 의미했던 “봄기운 가득한 천지”가 열리는 듯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3.1운동에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87년 6월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 등 백년에 걸친 시민혁명의 열매다. ‘무력’이 아닌 ‘도덕’을, ‘압제’가 아닌 ‘자유’를, ‘파괴’가 아닌 ‘건설’을 천명한 3.1정신을 지킨다면, 고난의 땅 한반도는 세계의 평화가 피어나는 부활의 땅이 될 것이다.

교회와 죄의 고백 민중과 함께 3.1운동의 새 역사를 썼던 한국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제주 4.3 ‘반공’의 완장을 차고 무고한 목숨들을 제물로 삼았던 분단시대의 교회,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며 거대한 욕망의 교회당 세운 개발독재시대의 교회, 불평등과 차별로 고통당하는 현실에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교회. 이제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죄의 고백,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없는 결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음을 깨닫는다.

우리의 고백을 모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 1. 행복:** 우리는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불행한 세상을 거부하고 마주보는 기쁨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한다.
- 2. 공동체:** 우리는 각자도생이 살 길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이 우리의 나갈 길임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는 삶을 산다.
- 3. 다양성:**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포용하고, 서로가 가진 ‘다름’이 함께 어우러지는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다.
- 4. 장애인:** 우리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으로부터 장애인 과비장애인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를 만든다.
- 5. 여성:** 우리는 여성혐오문화와 차별을 근절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 6. 청년:** 우리는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누고 행동한다.
- 7. 교육:**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행복하며 존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교육을 실현한다.
- 8. 경제정의:** 우리는 왜곡된 경제 질서를 바로 잡고 건강한 복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일구어 나간다.
- 9. 생태:** 우리는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오늘의 전 지구적 생명의 위기를 직시하는 것이 신앙의 책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선다.
- 10. 시민사회:**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공의롭고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건설이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며 시민의 참여를 북돋우고 활성화하는데 앞장선다.
- 11. 한반도의 평화:** 우리는 같은 거레를 갈라놓은 적대와 미움의 벽을 허물고 용서와 화해와 상생의 평화 공동체를 이룬다.
- 12. 세계평화:**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과 전쟁과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의 공존과 공생의 새로운 평화문명을 이룩하기 위해 힘껏 일한다.
- 13. 죄의 고백:**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만을 섬기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최수산

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그 이후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공식적인 합의문의 도출 없이 끝났다. 이후 전개되는 상황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도 혼란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회담은 왜 성과 없이 마쳤으며,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회담은 왜 결렬되었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데에는 핵심 사안인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에 북미간 좁혀지지 않은 몇 가지 이견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의 결과가 이미 예측된 것이었다고 말한다.

첫 번째 이유는, 비핵화 개념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북한측만이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를 일괄성 있게 견지해왔다. 이것은 미국이 비축한 핵무기를 한반도에 유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

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북한은 지난 해 6월 진행된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임으로써 협상의 자리에 다시 앉았다.

두 번째는, 북한은 동시적·단계적·병행적인 비핵화의 과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은 일괄 타결을 의미하는 ‘빅딜’을 주장하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며, 갈등의 양상을 보였다. 세 번째, 북한은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 결의 총 11건 중에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즉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해 달라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사실상 전

면 해제로 보고 거절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석탄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과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해제한다면, 북한의 경제 제재의 끈을 조이는 의미를 상실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1차 북미회담에서 최고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이 그 이후 구체적이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들에서 진전된 합의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실제적으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 도출이 어려웠다는 평가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유엔 대북제재 해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가장 핵심적 협상 과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유엔 대북제재 해제는 일괄적으로 타결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비핵화라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핵 분열 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핵 시설의 모든 과정들을 포괄적으로 신뢰성있게 조사하고, 단계별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2년 안에 이루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일로서, 10년 이상은 소요된다고 한다. 북한은 핵물질 생산 시설인 영변 핵시설 폐기를 협상안으로 내놓았지만, 미국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핵 고농축시설 폐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회담 결렬 이후 러시아와 경험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반면,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 체제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일본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중국 선박의 불법 환적 문제를 제기하여, 북측에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

유엔 제재가 단번에 전면 해제되기 어려울지라도, 미국의 단독제재 및 유엔 제재의 부분적 완화는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북한 내 인도주의 공동체는 1억2천만 달러를 유엔에 긴급 요청하였다. 2018년 곡물 생산량이 최근 10년 간 최하로서, 인구의 43%인 1천1백만이 인도주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3월 18일 YWCA를 포함한 55개 시민단체들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서한을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유엔 제재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평창올림

픽에서 선박 운항이 승인되었듯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또한 유엔 제재에서 예외적으로 승인될 수 있으며, 이후 부분적 비핵화와 남북 경험을 교류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돌파구는 있는가

회담을 통해 북미의 입장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오찬이 마련된 협상 테이블에는 두 나라의 정상이 자리하지 않았고, 장시간의 열차를 타고 하노이로 왔던 김정은 위원장은 성과 없이 귀국행을 서둘렀다. 그럼에도, 이후 양국이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은 않다. 양측 모두 회담 이후 긍정적 분위기를 보도한 바 있다. 비록 북한의 최설희 외무부 부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를 계속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지만, 이것 역시 북한 내부에는 보도하지 않은 대외적 메시지로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양측은 협상의 끈을 잡고 있지만, 명백한 입장을 내려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에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이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체제의 중심은 북미가 아니라 남북한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대북 특사 파견과 원포인트 정상회담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기에 선불리 자리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지만, 평화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 구축은 각자의 협상 조건들을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는 기본 로드맵을 통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최소한의 딜을 통해 신뢰 구축을 해나가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 여러 차례 모이면서 모두가 원하는 빅딜(big deal)까지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여긴다. 여기에는 평화 체제에 협력하는 주체적인 동반자로서의 시민 개인의 의식변화 및 참여와 더불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연 부대표

#미투의 완성은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한다

3월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다. 핵심은 지역구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1로 조정해 225석과 75석으로 변경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절반은 연동형으로, 나머지 절반은 병립형으로 배분하되 6개 권역별로 배분하는 것이다. 4당이 합의한 안은 그동안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독일이나 뉴질랜드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MMP: Mixed Member Proportional)에 못미치지만 무엇보다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을 연동형으로 배분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4당이 합의한 안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의안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 현재 내용 그대로 통과될지, 변경되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벌써부터 정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합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고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 의석수 증가를 가장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제시한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아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선거제도 개혁을 막고 있다.

한국 선거제도, 유권자 뜻 반영 못해

선거제도의 좋음과 나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유권자의 표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정도이며, 따라서 한 정당이 얻은 의석수가 유권자로부터 받은 표수(득표율)와 비례하면 비례할수록 좋은 선거제도이다. 쉽게 예를 들면, 한 정당이 유권자로부터 받은 득표율이 20%이면, 전체 의석의 20%를 가져가면 좋은 선거제도이다. 이러한 선거제도를 비례적 선거제도(proportional electoral system)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선거를 다수제적 선거제도(majoritarian electoral system)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선거제도를 갖고 있을까? 한국은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거대정당들은 자신들이 얻은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

은 의석을 가져가는 반면, 소수정당들은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는,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유권자 표의 상당수가 사표가 되는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33.50%의 정당득표율을 얻었지만 300석 중 122석인 40.7%를 가져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25.54%를 얻었지만 123석인 41.0%를 가져갔다. 반면, 국민의당은 26.7%를 얻었지만 38석인 12.7%의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정의당 또한 7.23%의 지지를 얻었지만 2.0%인 6석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권력집단 과대대표, 여성 등 과소대표

이러한 한국의 선거제도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들의 이해는 과대대표되고, 권력을 갖지 못한 집단들의 이해는 과소대표되게 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한국사회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힘 없고 뺨 없는’ (여성)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바닥을 향한 경주’를 펼치게 만든다. 이 속에서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인) 여성들은 ‘여성’이란 이유로 이중적 압박과 고통에 처하게 된다.

여성을 비롯해 과소대표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득권 집단에 유리한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유권자의 표가 의석수로 반영되는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상대방보다 한 표만 많아도 당선되는 단순다수제(현재 지역구 선거에 적용되는 방식)가 아니라 유럽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비례대표제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할 때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고 현재의 투표방식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과 뉴질랜드, 레소토, 볼리비아, 헝가리, 멕시코, 태국, 지부

티,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 10개이며(International IDEA), 한국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가장 참고할 만한 국가는 독일과 뉴질랜드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투표를 통해 얻은 투표율만큼 각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전체의석수가 300석이고 A 정당이 20%의 득표율 얻었다면 60석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런데 A 정당이 지역구에서 30석을 얻었다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30석을 가져가는 것이고, 지역구에서 60석을 얻었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전환 필요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나의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것으로 이는 나의 한 표가 정당과 유권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감정, 즉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체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고 그 표들이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그동안 정치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다양한 이해들이 정치에서 대표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비슷비슷한 사람만을 후보로 영입해왔던 정당들의 후보군(pool)을 넓히는 데도 기여한다. 더 나아가 이들이 당선되어 대표(representatives)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의제들이 정치에서 논의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화될 수 있다.

#미투를 시작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울려 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불안과 위기감을 느끼며 살고 있고 실제 여성들의 요구는 법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정치가 남성들에 의해 독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이해를 대표해줄 페미니스트 의원이 없기 때문이며 페미니스트가 대표가 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광장의 정치가 의회정치로 연결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사라져가는 대학내 총여학생회, 여전히 필요하다

김민주

연합회 홍보출판위원회 청년위원
청년기자단 3기

지난 1월 4일, 서울시 내의 마지막 총여학생회가 사라졌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의 존폐위기를 두고 벌어진 투표에서 폐지를 선택한 비율이 과반수를 넘긴 것. 연세대학교의 총여학생회 폐지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1993년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던 총여학생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2018년 성균관대, 광운대, 동국대에서 총여학생회의 폐지를 결정했고, 2019년 서울권 대학에서 유일했던 연세대 총여학생회 폐지가 결정되면서 서울권에서는 총여학생회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총여학생회는 1984년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민주화운동과 여성운동을 동시에 이끌었던 총여학생회는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한총련 여학우 성추행 사건 등을 공론화하고 1997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개정 되는 데 큰몫을 해냈다.

이처럼 여성 인권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총여학생회가 사라지게 된 배경에는 취업난으로 인한 학생 자치의 약화도 있지만, '한국 대학에서는 더 이상 총여학생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확대된 것이 주요하다. 2000년대 후반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하고, 대학을 다니는 20대(혹은 30대까지)가 경쟁하게 되는 취업 시장에

서 여성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자 대학 내 성평등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성 영향력 확대 착시가 부른 왜곡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백래시가 거세진 것도 한 몫을 했다. 페미니즘을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가 '집단 이기주의의 감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 이들은 페미니즘을 평가절하했고, 다양한 측면에서 페미니즘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페미니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Girls can do anything'이라는 문구를 적은 폰케이스를 사용한 여성 아이들이 욕설로 가득한 악플을 수도 없이 받은 사건 등 '백래시'를 겪은 여성들의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은 여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총여학생회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서도 20대 남성의 35.4%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는 한국 대학에서 여전히 필요하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과거와 비교해 성평등이 이뤄진 것만 같은 20대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2018년 성균관대, 광운대, 동국대에서도 총여학생회 폐지를 결정했다.

우선 대학가의 현실을 살펴보자. 남교수/남학생의 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당장 지난 2월에만 해도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에서 L 교수의 성폭력이 보도되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성폭력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작 정직 3개월을 '윈고'받았으며, 해당 교수는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2019년 1학기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여성은 학생이든 교수든 차별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3월 이어진 보도에서 서어서문학과와 성폭력이 비단 L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몇몇 교수가 "처녀는 부담되고 유부녀가 좋다", "여자가 스물다섯 살 지나면 꺾어지는데 너희는 지금이 최고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남편이 돈을 버는 여성 강사를 수업에서 제외시키자고 협의하고 실제로 협의 결과대로 진행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학과 측에서는 '교수들의 발언이 그저 '농담'이었다'거나, '특정 그룹이 학과를 흔들어 놓으려는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재 한국 대학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대학에 진학 중인 여성의 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교수진 내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

황이다. 현재 국공립대 여성 교수의 비율은 16.8%에 불과하며, 그나마 사정이 나은 사립대도 28.5%에 그치고 있다. 수업을 받는 학생이든, 수업을 하는 교수든 차별받고 있는 것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의 현실이다.

대학 밖의 현실은 더 가혹하다. 2017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67%에 불과하다. 성평등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는 20대에서도 성별간 임금 차이는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캔사스대 사회학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학과·학점 등 모든 스펙이 같아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17.4%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성별간 임금 격차가 남녀가 주로 선택하는 직업과 전공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일각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 안에서, 또 밖에서 여성이 겪는 현실은 차별 아래 있다. 총여학생회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여성은 여전히 대학 내외에서 차별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약자'다.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한국의 대학에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총여학생회가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1984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총여학생회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성차별을 방치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총여학생회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한국 대학에서 여전히 필요하다. 



이번 청년토크는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한국YWCA 20대 여성 청년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신는다. 사는 지역, 나이, 직업 등 각기 다른 20대 여성 청년들에게 20대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 운동을 물어봤다. '요즘애들'의 생각을 들어보자.

1996년생 페미니스트

Q 나에게 페미니즘이란?

평상시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상황, 여자라서 당연히 듣던 말이 어찌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상황, 여성들만 듣는 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더 나아가 무슨 일이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줬다.

Q 여자로 살면서 듣기 싫은 말은?

누나니까, 여자니까, 여자가 그러면 안 되지. 잘하는 게 없어서 싸게 시집이나 잘 보내야죠. 요즘 여자애들은 기가 세고 주장이 강해서 안돼.

Q 대한민국에서 20대 여성으로 사는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지며 꾸밈노동(화장, 패션, 용모 관리 등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가리키는 말이다.)을 시작한다. 짧은 치마를 입으면 누가 사진 찍을까 두려워하고, 밖에 나가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몰래카메라가 있나 없나 확인해야 한다. 자취를 한다면 택배를 받을 때는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받아야 하고, 배달음식을 받을 때도 1층까지 내려가서 받아야 한다. 회사에서는 유리천장지수와 회사 동료

들의 얼굴 폼평을 들을 수도 있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강요받지만 출산 후 막상 육아휴직을 쓰면 동료들의 짜림을 받을 수 있다.

Q 가장 나다울 때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눈치 봐야할 어른이 없을 때

Q 페미니즘 운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쉽 쉬기

Q 하고 싶은 페미니즘 운동은?

초·중·고등학생인 친구들에게 페미니즘의 정확한 의미와 대한민국에서 왜 페미니즘을 공부해야 되고 함께 알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다. 여자 아이들만이 아니라 남자 아이들에게도 페미니즘을 올바르게 알려주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 싶다.

1993년생 페미니스트

Q 나에게 페미니즘이란?

얼마 전 나를 멍하게 만드는 문구를 발견했다. '나에게 페미니즘이란 내 인생을 망치려온 나의 구원자'이다. 페미니즘을 접하고부터 당연시 생각해왔던 것이 불편해졌기 때

문이다.

Q 여자로 살면서 듣기 싫은 말은?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여자가, 여자는 이래야지, 여자답지 못하다. 이런 말이다. 여자다운 게 뭘까? 사회가 고정시켜놓은 여성상을 강조하는 저런 말들 때문에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틀에 갇혀있고, 틀에 자신을 맞추려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정된 여성성을 없애야 저런 말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Q 한국 사회의 성평등 의식 수준은?

100으로 따진다면 20 정도라고 생각한다. 한국 남성들은 '불법사이트', '몰카영상' 등을 보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하게 본다. 대학 내에서도 여성들을 성희롱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남성들의 젠더권력이다.

Q 가장 나다울 때는?

집에서 머리를 질끈 묶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통화할 때라고 생각한다. 밖에 나갈 땀 늘 꾸미고 나가고 불편했다. 아직 코르셋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노력해보려고 한다.

Q 여자로 살면서 힘들었던 적은?

너무 많은데 명절문화가 제일 기억이 남는다. 어렸을 때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페미니즘을 접하고 늘 엄마와 여자들만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며느리의 도리'로 포장을 해서 여성들에게 간접 폭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점이 결혼을 꼭 하고 싶다는 나의 생각을 비혼으로 바꾼 이유다.

Q 페미니즘 운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언젠가는 꼭 없어질 운동'이라 생각한다. 이 사회의 성평등이 이루어질 그 순간을 꿈꿔본다.

1998년생 페미니스트

Q 나에게 페미니즘이란?

누구나 평등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생물학적 성(SEX)의 여성만 페미니스트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퀴어 등 LGBTQIA 모두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가부장제와 젠더폭력, 성별임금격차 등과 맞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페미니즘 운동이 아닐까?

Q 여자로 살면서 듣기 싫은 말은?

'여성스럽다' 도대체 여성스럽다는 게 뭘지 모르겠다. 어린애가 핑크색을 입으면 '여성스럽다'고 말하고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여성스럽다'고 말한다. 긴 생머리를 하고 있어도,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어도, 수줍어해도 다 여성스럽다고 말한다. 그 기준은 누가 만드는 걸까? 지긋지긋한 말이다.

Q 가장 나다울 때는?

노브라로 있을 때. 나는 집에서 항상 노브라다. 밖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브래지어를 벗는 것이다. 나를 옥죄는 것이 없을 때 날아갈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이게 진짜 나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Q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은?

내가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닌다. 그러나 나는 내 주변의 소위 말하는 빵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계몽시킨다. 그러나 남자친구들의 경우는 조금 어렵다. 젠더 권력 위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내 말에 말도 안되는 반박을 하거나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더이상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Q 페미니즘 운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정한 나를 찾는 운동

Q 하고 싶은 페미니즘 운동은?

교회 내 성평등을 위해 일하고 싶다. 지난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에는 페미니즘 열풍이 불었다. 변화하고 있는 사회와 달리 교회 내 페미니즘 운동이 가장 어렵고 느린 곳이다.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교회에서 상처받고 병들어가는 여성들을 만나 회복시켜 주고 싶다. 또 한국 사회에 페미니스트 목사가 많아질 수 있도록, 교회가 성평등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운동하고 싶다. 



유스포럼 진행중

김예지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기획국장, 서울YWCA 회원

2019년 3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뉴욕 국제연합(UN) 본부에서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가 열렸다. 한국YWCA를 대표하여 2018년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중앙임원이었던 김예지(서울Y), 박성연(여수Y), 손지수(대구Y) 청년과 연합회 김수진 간사가 청년대표단으로 참가했다. 한국YWCA연합회 임원이자 세계YWCA부회장인 한미미위원도 함께했다. “성평등(Gender Equality)과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공공서비스, 지속가능한 인프라”라는 주제로 각종 정부 회의, 페스티벌, 사이드이벤트와 유스포럼(Youth Forum)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세계 다양한 국가의 많은 여성들이 뉴욕을 찾았다.

제63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베이징행동강령은 각국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됐다.

2020년은 바로 베이징행동강령 수립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사회·정치·경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전 세계 수백만 여성들은 여전히 수많은 형태의 불평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기 위해 수천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63차 UN CSW에 함께했다. 다양한 형태의 회의와 이벤트가 진행됐다. 특별히 만 30세 이하의 여성 청년들이 참가하는 유스포럼(Youth Forum)이 3일에 걸쳐 진행됐는데 “Take the Hot Seat”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유스포럼은 고위 정부 관계자와 UN 지도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청년들이 직접 패널대화를 이끌며 질문했고, 패널이 이에 즉각 답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00개국의 청년 리

더들은 여성을 위한 사회 보호 및 공공 서비스,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해 강력히 약속 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의 몸’을 이야기하다

한국YWCA 청년대표단은 CSW 기간 중 ‘여성의 몸’을 둘러싼 이슈별 사례들을 듣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했다. 우리는 ‘임신중절’이나 ‘낙태’가 아닌 ‘낙태·죄’의 어원과 그 배경에 대해 준비했다. 다른 국가의 참가자들 또한 흔쾌히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네팔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리하는 여성을 헛간에 격리시켰다고 했다. 농촌과 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했다. 여성과 소녀들은 안전한 길조차 없어 납치, 폭력에 그대로 노출됐다. 우리는 한국에서 준비해간 “My Body is My Choice” 배지를 함께 달았고, 서로를 응원했다. 다른 국가의 낙태권에 대해 듣



세계Y X배너와 한국Y 청년 참가자들



호주 정부가 주최한 오찬 후 세계Y 참가자들과 함께

기 위해 정부회의에 참석했다.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물론 국가마다 종교, 가치관, 세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낙태죄 폐지’를 두고 팽팽한 의견대립 등 다양한 상황이 있다. 하지만 낙태 합법을 이끌어낸 아르헨티나 사례에 함께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은 같이 공감하고 환호했다.

세계는 지금, 성평등(Gender Equality)를 향하여

CSW에 참가하는 YWCA 회원들을 응원하기 위한 호주 정부와의 만남이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산업계, 비영리 단체 전반에 걸쳐 온라인상 안전한 공간을 위해 설립된 ‘eSafety’ 사무소를 소개했다. 특히 폭력을 막기 위한 호주 정부의 여성 안전 지원책인 ‘eSafetyWomen’은 여성들이 온라인상에서 위협과 학대, 혐오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도움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한국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로 고통받고 있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술이 여성에게 악용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이전부터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LGBTI 여성들을 위한 공공정책 회의에 들어갔다. 한국에서는 다룰 수 없는 내용인데 영국, 캐나다 등 꽤 많은 국가에서 이미 그들을 위한 공공정책과 교육과정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YWCA로 연결된 우리들

세계YWCA 사무총장과 스태프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YWCA 회원들 또한 CSW에 함께 했다. 처음 만났지만 우리는 YWCA이기에 따뜻했다. YWCA가 주최하는 일정을 공유하여, 우리는 캐나다YWCA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캐나다는 커밍아웃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러 이유로 스스로 노숙자가 된 사람, 특히 여성 노숙자에게 안전과 안보를 제공해줄 주거(Housing)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녁에는 아시아YWCA 모임도 가졌는데, 아시아 여성으로서 비슷한 상황과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다. 일본Y 청년과 중국출신의 청년과는 ‘여성혐오’와 ‘미투운동’에 대해 열띤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YWCA 청년대표단은 한인 여성 이민자들로 창립된 퀸즈YWCA도 방문했다. 대학·청년YWCA 활동을 소개하고, 퀸즈Y의 중점 활동과 목표, 서로의 고민을 공유했다. 퀸즈Y를 모든 이민자를 위한 곳으로 만들며 더불어 어려움에 처한 타 지역Y를 도와주는 큰 YWCA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함께 나눴다.

We are Linked not Ranked

올해도 CSW에 온 수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고, 서로 공감하고, 조직, 국가, 세계를 바꾸기 위해 힘쓰고 있음을 생생히 느꼈다. 주변 사람의 인식을 바꾼 여성부터 국가의 정책을 바꾼 여성까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CSW에 다녀온 한국YWCA 청년대표단으로부터 한국YWCA, 한국사회, 더 나아가 세상이 변화됐으면 한다. 여성들이 연대하면 반드시 여성의 권리를 세울 수 있는 날이 온다. “It wasn’t yesterday. Tomorrow it will be.”

3.11 나비퍼레이드

-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 1500여명,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8.1km 행진
- 핵발전소, 밀양송전철탄, 소성리 사드 철회 지역 주민들이 탈핵 요구 발언
- 정치권은 탈핵 가짜뉴스 대신 탈핵에너지전환 답을 제시해야

최지영

연합회 중점운동국 간사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현의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를 맞아 핵발전소에 기댄 에너지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탈핵 정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개인, 단체로 구성된 '3.11준비위원회'와 '후쿠시마 8주기 행사위원회'가 준비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 나비퍼레이드>는 1,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총 8.1km 행진을 했다.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무책임한 가짜발언을 일삼는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의미로 국회에서 출발한 3.11 나비퍼레이드는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염원을 모아 시민들의 광장인 광화문으로 향했다.

YWCA에서는 회원YWCA(서울Y·인천Y·청주Y)와 연합회에서 약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퍼레이드는 1막 '죽음을 부르는 핵발전소, 쌓여가는 핵폐기물', 2막 '지구촌 생명들의 간절한 소망, 탈핵', 3막 '대지의 어머니와 생명 평화의 길로'로 구성되어 핵발전소를 멈추고 탈핵과 생명평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위태롭게 실려 있는 핵폐기물통을 힘겹게 끌고 가는 사람들, 8세 어린이 참가자가 등에 지고 있는 핵폐기물통은 현재 한국의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의 현재를 상징한 거리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연막탄이 터지고 거리에 쓰러진 사람들의 모습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퍼포먼스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고농도의 방사능 위험으로 핵연료를 꺼내지도 못했으며, 지역주민들도 방사능 위험으로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핵의 위험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어진 탈핵집회에서 고준위핵폐기물 대응에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 대표는 "세계적으로 1950년대 처음 핵발전소를 건설했을 당시에도 핵폐기물 처리기술은 없었으며, 현재도 그 방안은 없다"고 발언했다.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받아 정당 발언도 이어졌다. 노동당 서태성 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 1년 이후에도 한국의 핵발전소의 안전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핵발전소라는 위험한 돈벌이 수단을 멈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녹색당 신지에 공동운영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미세먼지 원인을 탈핵으로 규정한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양젓물이나 독극물이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힘써야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구 생태계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핵발전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생명 평화 공동체로 탈바꿈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YWCA 회원들은 앞으로도 탈핵과 에너지전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눈앞에 놓인 고준위 핵폐기물 이슈와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WTO 결과 대응 등 생활방사능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YWCA



후쿠시마 8주기 핵재앙은 현재진행형이다!

YWCA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8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탈핵캠페인을 펼쳤다. 회원YWCA의 탈핵캠페인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다. 전국 15개 회원YWCA와 연합회는 '핵폐기물 답이 없다'를 외치며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 건설 반대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탈핵 에너지 전환 사회를 희망했다.



YWCA연합회·서울·인천·청주YWCA 광화문 거리



거제YWCA 거제 고현시내 사거리 앞



광주YWCA 충장로



사천YWCA 구세군회관



안양YWCA 범계역 로데오거리



김해YWCA 김해YWCA 회관 및 은행가 사거리



남양주YWCA 덕소역 앞



익산YWCA 익산YWCA 회관 앞



진주YWCA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부터 진주교



대구YWCA 동성로



부산YWCA 부산 서면 하트조형물 앞



진해YWCA 진해YWCA 회관 앞



창원YWCA 경남도청



왼쪽부터 '교회언니'로 함께한 백소영·이은애·이주아·김희선 교수

김예리

서울YWCA 여성참여팀 부장

서울Y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토크콘서트 '교회언니들의 불금파티'를 개최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성차별의 경험을 자유롭게 털어놓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 백소영 교수(강남대 기독교학과)가 진행을 맡았고, 여성신학자인 김희선·이은애·이주아 교수가 '교회언니'로서 8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소통했다.

'불금'은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의미와 함께, '금지된 것은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 참여한 80여 명의 청년들은, 암묵적으로 침묵을 강요당했던 교회에서의 성차별과 여성혐오의 경험에 대해 솔직하고 거침없이 쏟아냈다.

참가자들은 교회 성차별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성차별적 설교(남성중심적 성서해석)', '여성혐오적 교회 문화(언어, 행동)', '목회자/교회지도자에 의한 성폭력'을 꼽았다. 이 3가지 주제에 대해 패널들이 사례와 해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목사님이 창세기를 설교하던 중 하와 때문에 이 세상이 죄가 들어왔으며 강단에서 내려와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나이 지긋한 여성성도들을 한 명 한 명 가리키며 '바로 이 여자들 때문에 세상이 죄가 들어왔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성도들은 수치스러운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이유는 여자들이 입이 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차별적 설교에 반박하고 싶어도 목회자에 비해 성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평신도들은 성경의 권위에 눌려 문제제기를 주저하게 된다.”

구약성서학자인 이은애교수는 성차별적 성서해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이 성서해석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주로 남성에게 의해 쓰이고 해석되어 온 성서는 가부장적 해석과 결합하여 일부 강단에서 성차별적 설교가 버젓이 선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파악하고 기존의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여

성의 시각에서 옳은 해석을 고민하는 성서읽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사준비를 전담하는 것을 비롯해 온갖 잡일은 여성들이 하지만 교회건축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남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드러나는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남성사역에 비해 여성사역은 골방에서 중보기도하거나 돕는 제한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교육학자 이주아교수는 성서에서 많은 여성인물들의 존재와 사역이 축소되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략되어왔음을 '영의 커리큘럼'의 개념을 들어 설명했다. 여성 지도자나 여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제한적인 영역에 위치시키려는 교회의 관성적인 문화를 꼬집으며, 문제의식을 느낀 여성들이 서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가 변화의 첫걸음을 강조했다.

한 남성 참가자는 전도사 시절의 경험을 말했다. 남성 목회자들과 전도사들 간 성적인 농담이 많이 오갔는데, 심지어 한 성도의 외모를 거론하며 '따먹고 싶다'는 성범죄에 준하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동조하지 않으면 왕따시키는 분위기라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목회상담가인 김희선교수는 목회자라는 권위에 남성의 위계가 더해져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중에서도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가 가장 흔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네가 내 목회에 정말 도움이 된다', '네가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목회자의 말에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의 여성신도들은 쉽게 빠져들게 된다. 이후에도 죄책감과 자기혐오에 시달리게 되고, '주의 종은 하나님이 벌하신다', '교회를 망가뜨리지 말라는 잘못된 조언'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더불어 당사자들이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의 바른 대처법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보듬고 회복시키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아직 신앙의 힘으로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지만, 교회에서 여성으로 존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성차별의 경험에 대해 말했다. 성차별적 언어폭력으로 상처받아 교회를 뛰쳐나왔다는 한 참가자는 이미 10년도 더 된 경험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교회의 성차별적 문화에 침묵하며 견디는 것도, 성차별적 문화에 홀로 대항하는 것도 너무 힘겨운 여성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앙공동체에서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강당을 가득 채운 청년들은 아직 채 식지 않은 분노를 삼키며 말하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용기를 담아 전하는 이야기에 참가자들은 박수와 눈물로 연대를 전했다. 어떤 판단이나 선부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저 듣고 공감하는 언니들에게 그저 말하는 것만으로도 참가자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다.

백소영교수는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자신을 살리고 살아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이를 위해 서로 지지받고 연대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한 공간에서 정의롭게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변화의 출발이며 오늘의 자리가 그러한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12:15)

서울Y는 든든한 '교회언니'로 상처받은 기독교여성청년들과 함께 아파하고, 이들이 서로 지지하고 연대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겠다는 소명을 품어본다.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작은 부분부터 바뀌나갈 용기가 생겼다'는 한 청년의 고백이 서울Y가 이런 소명을 잃지 않게 할 용기가 되리라.

'Nixing'은 여성신학자 메리 대일리(Mary Daly, 1928~2010)가 사용한 용어로, 가부장제 안에서 제한된 여성의 역할과 여성성을 규정하는 고정관념에 대한 거절을 뜻한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천 여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며, 여성 권익 신장의 기폭제가 된 그날.

2018년 #미투를 통해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 왔던 현실을 드러내며 전국 23개 회원YWCA는 성차별과 성폭력 구조에 대한 변화를 외쳤다.



거제YWCA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고양YWCA 고엽역



안산YWCA 중앙역 광장



안양YWCA 범계역 앞 로데오거리



여수YWCA 이순신 광장



광양YWCA 광양YWCA 회관



광주YWCA 5.18 민주광장



대전YWCA 대전광역시청 북문



익산YWCA 익산YWCA



인천YWCA 구월동 로데오거리



제주YWCA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마산YWCA 마산YWCA 회관



목포YWCA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정문



서울YWCA 서울YWCA 강당



진주YWCA 진주시청 일대



진해YWCA 여성회관 진해관 대강당



창원YWCA 만남의 광장 일대



성남YWCA 아탑역 광장



속초YWCA 로데오거리



수원YWCA 수원YWCA회관



천안YWCA 천안YWCA 강당



춘천YWCA 춘천명동



파주YWCA 금정로길

‘다름’에 다가 서서 ‘불편함’을 깨는 용기 영화 <그린북>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정책기획국 부장



그린북 감독 피터 패럴리 / 드라마 / 130분

올해 열린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화로 작품상을 차지한 것은 <그린북>이었다. 많은 이의 예상을 깨 의외의 결과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보헤미안 랍소디> 등과 같은 이미 작품성과 흥행성에서 열광적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 존재했고, 무엇보다 실제 이야기에 근거한 영화의 두 주인공의 모습을 심하게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수상 소식에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다. <그린북>은 차갑고 비정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우정’과 ‘연대’의 힘, 그걸 가능하게 하는 만드는 ‘용기’에 대해 시종 유머스럽게, 하지만 결국 뜨겁고 뭉클하게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이다.

흑인과 백인의 이상한 우정

<그린북>은 실화에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인종

차별이 여전히 뿌리 깊었던 1960년대 미국, 흑인 천재음악가 돈 셸리 박사와 이탈리아계 이민자 백인남성으로 돈 셸리 박사의 고급차를 운전하는 토니 발레롱가가 미국 남부로 콘서트 여행을 떠나며 벌어지는 우정의 이야기들을 보여준다. 흑인과 백인 사이의 우정이라는 주제라는 점에서 언뜻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나, <언터처블, 1%의 우정>을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린북>은 계층적으로 우위에 있는 백인, 하급의 흑인이라는 전형적 도식을 깬다. 흑인은 돈 셸리는 천재음악가로서 3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뉴욕의 상류층이고, 그에게서 월급을 받고 그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하는 백인 토니 발레롱가는 무식한 말을 연발하는 ‘떠버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뭉치 주먹으로 해결하는 하류층이다.

흑인인 돈 셸리 박사는 재즈도 아닌 클래식을 연주하며 가는 곳마다 폭발적이고 열광적 반응을 일으키는 뉴욕 최상류층 음악가다. 그리고 그는 품위와 교양이 넘치는 사람으로 뉴욕의 저택에서 고급위스키를 즐기는 삶을 산다. 반대로 뉴욕의 클럽에서 일하면서 주먹으로 해결사 노릇을 하던 토니 발레롱가는 차 안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먹어대고 품위없는 말을 속사포처럼 늘어놓는 덩치 큰 백인이다.

하지만 인종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60년대 미국 현실은 돈 셸리 박사의 삶을 시종 위협한다. 돈 셸리는 ‘교양있고 돈 많은 상류층’이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멸시와 차별, 때로 목숨까지 위협당하며 안전지대 안에서인 ‘그린북’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더구나 그는 저주에 가까운 사회적 멸시를 받는 성소수자이고 외톨이다. 그가 흑인이면서 성소수자라는 이중의 억압과 위험을 무릅쓰고 인종차별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미국 남부로 순회 콘서트를 떠날 때, 가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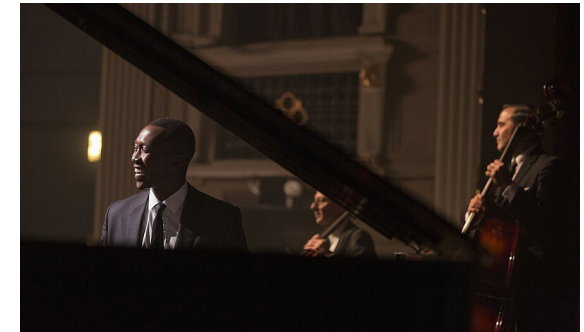
생계를 위해 운전사로 고용된 토니 발레롱가는 그의 곁에서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를 지켜내고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예상치 않게 그와 깊은 신뢰와 우정을 쌓아간다.

다름 속에 피어나는 이해와 연민

토니 발레롱가는 운전사로 일하기 전엔 흑인의 마시던 컵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정도로 흑인을 경원시하던 전형적 백인이었다. 그러던 그가 흑인의 운전사가 되어 남부 콘서트 여행에 함께 하면서 인종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로 인해 흑인들이 마주하는 폭력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온몸으로 실감하게 된다.

돈 셸리 박사의 연주 앞에서는 열광하지만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하기를 꺼리는 백인들, 공연장에서 길거리에서, 도로 위에서 맞이해야 하는 술한 인종차별의 현실은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과 달리 너무나 황폐하고 처참했다.

그린북이 안내하는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지만 그 길 위에 어처구니없이 경찰로부터까지 구금을 당하고 거기다 소수자로서의 정체성마저 드러나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리는 현실 속에서 토니 발레롱가는 궁극해진다. 왜 이토록 위험을 감내하면서 인종차별의 지뢰밭과 같은 남부 콘서트를 계속하는가. 수많은 이들이 돈 셸리가 만들어내는 매혹적인 음악들에 열광하고 있고, 그는 토니의 아내에게 보내는 서툰 편지를 금세 세련되고 멋진 문장으로 바꿔주는 품위와 교양도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그 의문은 단지 운전사이자 보디가드로서 위험을 처리해야 하는 피곤함 때문은 아니다. 그 빛나는 천재성과 교양, 대중적 열광 뒤에 자리한



돈 셸리의 슬픔, 고통, 눈물들과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러 불편함과 갈등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름’과 ‘불편함’ 속에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와 대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장소에서 팍팍하고 고단한 삶을 따뜻하고 경이롭게 살아갈 우정과 용기가 피어난다.

비대면사회 차별과 편견을 깨는 용기

위험과 불편함을 피한다면 얼마든지 뉴욕상류층으로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토니의 의문에 콘서트를 함께 하는 동료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천재성만으로 부족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다. 돈 셸리 박사는 차별과 편견을 그저 피해지만 않고 직접 대면하기로 했고, 그 가운데 토니라는 백인 남성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돈 셸리 박사에게 다시 더 견고한 차별을 깰 때까지 백인들을 피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용기를 주었다.

자동주문기계, 무인 상점, 전자 거래 등 불편함과 피곤함을 피하기 위해 사람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고안된 수많은 장치들 속에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할까?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되고 불편함을 만든다고 피하고 외면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 세상의 ‘그린북’을 만들어야만 한다. 서로의 다름에 한 발짝 다가서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새롭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영화 <그린북>은 경쾌하게, 그러나 묵직한 감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월례아침기도회



2019년 첫 월례아침기도회가 3월 7일(목) 오전 9시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화여대 교목실장인 장운재 목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란 주제로 설교했다. 임원회가 준비한 '희망의 속삭임' 특송이 3월 희망의 아침을 열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2월 24일(일)~27일(수)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가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NCCK, 평통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4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회 한영수 회장이 환영사를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3.1운동을 바르게 기억하고 더 나아가 평화로운 한국사회를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3월 6일(수)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이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 대안 없다',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지 마라', '대책 없는 핵폐기물, 핵발전소 멈춰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시민선언에는 103개 단체와 2,063명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연합회 탈핵생명위원회 이종임 위원장이 선언문을 낭독했다. 참석한 이들은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3.11 후쿠시마 핵사고 8주기 탈핵예배



후쿠시마 핵사고 8주기를 맞아 3월 11일(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연대가 주최하고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NCCK,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주관하는 탈핵연합예배가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재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참혹한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핵 없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기도했다.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



종교계를 대표하는 7대 종단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여성단체가 공동 개최한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가 2019년 3월 1일(금) 서울 광화문 및 세종대로에서 한국YWCA연합회 임원단과 실행위원, 실무자, 회원YWCA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영수 회장의 기미독립선언서 낭

독과 원영희 부회장의 한일 시민공동선언 낭독이 있었다.

시민금융진흥원과 청년·대학생 금융교육 활성화 추진



연합회는 2월 21일(목) 시민금융진흥원과 청년·대학생의 금융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년, 민간전문가와 함께 청년·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체험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청년·대학생에게 '찾아가는 금융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씨티-한국Y 금융교육 협약 14년차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은 3월 15일 오전 연합회 강당에서 씽크머니 협약식을 가졌다. 2006년부터 시작된 두 기관의 협약은 올해로 14년차를 맞았으며 박진희 한국씨티은행장은 씨티재단의 후원을 받아 한영수 연합회 회장에게 지원금 약 3억 4천만원(미화 31만 달러)을 전달했다. 올해부터는 전국 23개 회원YWCA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센터, 아동복지시설, 교정시설 교사들에게 지역별로 씽크머니 연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금융역량을 높이고 금융교육 소외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씽크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어서와, 스무살은 처음이지

2월 25일~26일 한국YWCA에서 '어서와, 스무살은 처음이



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6개 회원Y에서 10명의 Y-틴이 참여했으며 대학·청년Y와 일대일로 1박 2일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레크레이션을 시작으로, 대학생활 꿀팁(학과정보, 주거문제, 동아리활동, 대외활동)을 공유, 사람책방(각 지역 동아리 정보, 사회문제)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접하고, 성평등도서관 '여기' 탐방과 스무살 버전의 성교육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스무살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듣게 되어 의미있다는 평가와 함께 대학·청년Y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9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상반기 관장협의회



2019년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상반기 관장협의회가 2월 21일(목) 정오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일자리 정책과제'를 주제로 권혜자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이 강의를 하고, 실무자연수 개최건을 논의하였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국 53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회원YWCA가 2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9 YWCA 지역위원장 연수

2019 YWCA 지역위원장 연수가 3월 7일(목)에 한국YWCA연합회에서 열렸다. 한국YWCA 5부지역위원장이 참석하여 지역의 현안과 계획을 나누고, 100주년을 맞는 한국YWCA의 지역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며 지역위원

연합회 소식



회의 운영 비전 수립을 통하여 지역운동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함께 토론했다. 2019년 지역위원장으로는 양애자 경기지역위원장, 조철숙 북부지역위원장, 김옥순 중부지역위원장, 권경미 서부지역위원장, 홍순옥 동부지역위원장이 선출됐다.

굿모닝미인카드 기금 전달식



YWCA와 농협이 함께하는 '굿모닝 미인카드' 기금 전달식이 3월 7일(목) 연합회 회장실에서 진행됐다. 농협은 13년째 회원YWCA법인카드와 개인들이 사용한 굿모닝 미인카드 금액의 적립분을 YWCA에 후원하고 있다. 2018년 기금은 8,099만원으로 YWCA 지도력 교육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제 63회 여성지위위원회CSW



한국YWCA연합회 대표단은 3월 8일(금)부터 3월 18일(월)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여성·여아의 권익 증진과 젠더 평등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 공공 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시설 접근성'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 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63)에 참가했다. 한국YWCA 청년대표 4명은 CSW 회의 기간 중 전 세계 참가자들과 가부장제도 아래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고민을 나누고, 'My body My choice'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세계YWCA의 각종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하였고, 퀴즈YWCA를 방문하였다. 특히, 세계YWCA 부회장과 함께 '아시아YWCA 젊은 여성 모임'을 주최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 회의 및 공동 선언'



3월 19일(화) 오전11시 한국YWCA연합회는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NCKK 등의 종교계 등과 연대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 회의 및 공동 선언'을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하였다. 북미간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통한 갈등 해결, 한반도 당사자인 남과 북의 역할, 그리고 한반도의 주인인 민의 주도를 호소하였다.

5부지역위원회 회원증모워크숍



5부지역위원회 회원증모워크숍이 3월 19일(화)부터 각 지역위원회별로 개최됐다. 3월 19일(화)에는 경기지역위원회가 연합회 강당에서 회원증모 홍보물 제작 강의와 워크숍

을 진행했고, 북부지역위원회가 인천YWCA 강당에서 회원증모운동 모금전략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서부지역위원회는 3월 25일(월) 광주YWCA 강당에서 YWCA목적문 영성훈련과 회원증모 사례 적용 워크숍을 진행했고, 동부지역위원회는 3월 29일(금) 부산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YWCA목적문영성훈련을 통한 회원증모의 의의 강의를 들었다. 4월 5일(금) 중부지역위원회는 청주YWCA 강당에서 지역YWCA의 사례 나눔과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9년도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2019년도 제1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3월 21일(목) 오후12시30분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52개 회원YWCA 사무총장과 준비회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와 사무회의 등을 진행했고, 2019

년 한국YWCA 운동과 운영 협의, 새로운 YWCA를 위한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로컬라이즈 군산 : Y-LAB(YWCA 청년연구소)



청년 창업과 혁신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시재생 프로젝트 <로컬라이즈 군산>이 군산 지역을 기반으로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인큐베이팅 트랙으로 YWCA 청년팀 "Y-LAB(YWCA 청년연구소)"이 최종 선정되어 예비 로컬 창업가로서 색다른 YWCA청년활동이 시작된다. 군산YWCA 공간을 거점으로 군산 복합 커뮤니티 하우스와 여행자 휴게소를 테마로 하여 지역-여행자-로컬라이즈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안전한 여행'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유관순상' 김태련 후원회 이사 제18회 유관순상 수상자로 선정

이대에 여성심리학 첫 개설, 아동장애치료센터 설치 장애인 음악치료 국내 첫 도입도

3월 11일 제18회 유관순상 수상자로 김태련 후원회 이사(아이코리아대표)가 선정됐다. 유관순상은 유 열사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려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이나 여성단체에 주는 상으로 충남도와 유 열사 묘교인 이화여고, 그리고 동아일보가 2001년 제정했다. 43년간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로, 17년간 (사)아이코리아 대표로 재직하면서 아동과 여성, 장애인,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해 한결같이 일한 공로를 높이 샀다. 아이코리아는 사회적 약자의 평생교육과 재활 등을 담당하는 공익기관이다. 김태련 한국YWCA 후원회 이사의 이력에는 항상 '최초가 따라붙었다. 이화여대 교수 시절 국내 최초로 여성심리학, 발달장애심리

학 과목을 개설했다. 교내에 아동장애치료센터를 만들었고 한국 여성심리학회 창립했다. 장애인을 위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김태련 수상자는 아이코리아 대표로 장애아동에게 독립적인 생활기술 교육 프로그램(TLS)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일대일 친구 맺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서울에 확산시켰다. 현재는 성인과 직장인을 위한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활동의 외연을 넓혀 고령화·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시상식은 4월 4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다.

3월인사

- 등정**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사)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센터 이사장 취임
 (2019년 2월 26일자 / 임기: 2019년 2월 ~ 2021년 2월)
윤마리아 (김태련 후원회 이사 모친) 독립유공 대통령상 수상
윤형규 안수집새(윤명선 평화통일위원회 위원 조부) 독립유공자 선정
- 채용** **이주영** 협력사업팀 간사 (2019. 3. 7차) **승진** **이혜련** 법인연구팀 부장 (2019. 2. 1차)
박진화 법인사무국 팀장 (2019. 2. 1차)

2019 한국YWCA연합회 장학금 현황

장학금명	수혜자	금액	
YWCA1922 장학금	Y-틴 중앙임원단 9명, 대학·청년Y 임원 및 운영위원 25명	18,000,000	
김활란 기념장학금	신연진 Y-틴 전국협의회장 (동해Y)	1,200,000	
손메리·손인실 장학금	조수정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장 (청주Y)	1,600,000	
고의순 나눔장학금	이금란, 레타인김응옥 (안산Y, 진주Y Y-틴)	2,400,000	
이행자 리더십장학금	사회복지사 양성 프로젝트 코딩교육 지원	최지영, 이희정(연합회), 정은영 (대구Y) Y-틴 (20명, 모집예정)	4,200,000 1인당 500,000
김갑현 장학금	박경하 (양산Y), 유예선 (세종Y), 이윤숙 (연합회), 전명진 (대구Y), 천현지 (청주Y)	5,000,000	
이명혜 리더십장학금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9. 2. 1 ~ 2019. 2. 28)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기부	강송아, 강현중,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권순복,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미애,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은경, 김은영, 김일근,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경,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정빈,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혜진, 서은미,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수,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주영, 이지윤, 이찬형, 이천진, 이행자,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선희,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채정희, 천유란, 최수나,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황홍백	1,775,000
개인 기부	박용옥, 오경선, 이진용, 이혜련, 조광성, 천유란, 기타 익명	169,220
회원YWCA	동해YWCA, 익산YWCA, 원주YWCA	314,460
부속시설	YWCA은학의집(2018년 성탄헌금)	439,000
어린이집	청주어린이집	867,53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하늘가족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330,000
기관 및 단체	KB국민은행 안구정역지점, 명성약국, 르뱅(명동성당점), 레오니다스, 전광수 Coffee House(명동성당점), 에쎬레젤라또(명동점), 일파명동성당점, 여성능력개발	294,480
합계		4,189,690

YWCA 1922장학금 모금현황

(2019. 2. 1 ~ 2019. 2. 28)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기부	김민주, 김윤지, 김은옥, 김지훈, 박병호, 박수미, 배영자, 배정옥, 신성균, 안정미, 엄선옥, 이상일, 이숙현, 이주연, 이희정, 왕미숙, 천규승, 오자키유미코외 8명	900,897
합계		900,897

2차 북미 정상 회담 결과에 대한 한국YWCA 논평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며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공식적인 공동 성명 발표 없이 종료되었다. 2018년 1차 싱가포르 회담의 성공적 합의 이후 한반도의 평화에 집중된 세계의 이목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조심스러우면서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와 북한의 핵 시설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전격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긴 철로 여정으로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길에 오르면서 걱정과 아쉬움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협상은 첫 단계이며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선부른 결론이다. 유엔은 이번 회담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로 발전하기 위한 ‘용기 있는 외교’가 구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회담 이후,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이번 회담이 조선(한)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고 평했다. 또한 미국의 백악관은 ‘비핵화와 경제 관련한 구상 논의에서 건설적인 회담’이었음을 밝혔다. 북미 양측 모두 차후 회담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 정부는 미국, 북한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결의하고 있다.

오랜 과거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북미가 상호 존중과 평화적 해결방법을 전제로 한 교류와 협의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미가 진전된 대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1차 회담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려는 구체적인 실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지난 해 추가적으로 북한 제재를 시행해왔으며, 그로 인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이행 등이 미뤄지고 있다. 미국의 제재 완화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노력은 북미 간 대화의 전제 조건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루어가는 필수 조건이다.

한반도는 긴 분단과 단절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 시대를 향하는 열망으로 뜨겁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담은 이 땅에 자유와 평화의 실현을 부르짖었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시기에 진행되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체제는 시민과 정부, 그리고 주변국들의 상호 협력과 남과 북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북미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남북 및 한미 간 대화와 중재를 통해 주체적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남북 간 민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평화의 인식이 확산되도록 남북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남북한 민간 교류와 세계 여성들의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왔던 한국YWCA 10만 회원들은 변함없이 이 땅의 평화프로세스를 이끄는 남북 정부의 노력에 협력하는 주체적인 동반자로 헌신할 것이다.

2019년 3월 1일

한국YWCA연합회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고양YWCA회장 이·취임식



고양YWCA는 3월 11일(월) 한살림강당에서 고양시 각계인사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대 김춘애회장과 제15대 윤정애회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하였다. 승리교회 진희근목사의 설교로 취임예배를 드렸다.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광명시 운동부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광명YWCA는 2월 25일(월) 광명시 관내 학교 운동부 학생 180여명과 지도자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성폭력예방교육과 학생선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체육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운동부 성폭력, 인권침해 근절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가 논의되고 있다.

남양주YWCA

이정은 팀장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남양주YWCA는 2월 11일(월)~2월 22일(금) 11일동안 남양주, 가평 지역에서 활동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2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생들은 8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각 지역으로 가서 맞벌이 가정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부천YWCA

김은아 팀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임원회의



부천YWCA는 3월 12일(화) 부천복사골문화센터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임원회의를 실시하였다. 2019년 시민참여단은 시의회, 부천시와 연대하여 380여 개 조례 검토 및 결과보고회 개최할 예정이며 성인지 관점의 조례개정 건의를 계획하고 있다.

성남YWCA

김경진 간사

동계 자원봉사학교(어르신 놀이학교)



성남YWCA에서는 2월 27일(수)~28일(목) 은학의 집에서 청소년 동계자원봉사학교를 진행했다. 첫째날에는 자원봉사자의 기본 마인드와 소양교육을 배우고, 어르신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에는 주간보호 어르신들과 인지 기능 향상을 돕는 게임을 진행하고 말벗 활동을 전개했다.

수원YWCA

정혜진 주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



수원YWCA는 3월 8일(금) 수원YWCA 회관 로비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성차별, 여성인권관련 자료를 전시했고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담은 안내지와 장미꽃을 나누며 여성들을 응원했다.

안산YWCA

홍지인 팀장

3.8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안산YWCA는 3월 8일(금) 안산 중앙역 광장에서 지역 내 22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안산여성대회를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또한 여성 참가자들이 경험한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말하기 대회가 진행되었다.

안양YWCA

이규숙 부장

주민참여예산 시민강사양성과정 운영



안양YWCA는 3월 7일(목), 14일(목) 안양시청 3층 상강실에

서 2019년 안양시 예산학교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시민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시민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안양시 31개동 제안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현장적인 제안이 발굴되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의정부YWCA

김흥례 부장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의정부YWCA는 2월 25일(월)~3월 13일(수)동안 의정부, 양주, 포천 지역39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총 80시간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진행하였다. 대학 교수와 기관장 및 어린이집 원장들로 강사진이 구성되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은 지자체가 직업교육능력과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 비영리단체(법인)을 선발, 지정하고 있다.

하남YWCA

김상미 간사

'자·아·성' (자신있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



하남YWCA는 2월 19일(화)~21(목) 2일간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교육장에서 하남시에 거주하는 예비5학년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자신있는 성가치관 형성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총 3회동안 조별활동을 통해 서로 토론하고 나누는 체험학습이 이뤄졌다.

동부

대구YWCA

배민희 간사

대구기독교 3.1운동 연합예배

대구YWCA는 2월 28(목) 제일교회 기독교 역사관에서 대

회원YWCA 소식



구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3.1운동의 정신 계승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31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부산YWCA

김예은 간사

임원·위원장·실무자 협의회



부산YWCA는 2월 26일(화) 청도 소재 홍순옥 회장의 집에서 2019년 부산YWCA 임원·위원장·실무자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밥상공동체를 시작으로 여는 예배, 인사말씀, 소개, 상임위원장의 역할, 2019년 한국YWCA 중점사업 설명, 임상임위원회별 워크숍, 토의사항 발표,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 낭독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3.1운동 100주년 기념, 그 날의 함성을 재연



울산YWCA는 2월 28일(목) 울산대공원 동문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플래시몹을 진

행하였다. 울산시민사회연대회의 100인의 지도자와 울산광역시 노옥희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태극기를 손에 든 채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삼창이 진행 되었다. 100년 전 3.1운동 그날의 함성을 재연하고 울산 시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포항YWCA

이유정 간사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포항YWCA는 3월 14일(목) 포항YWCA 6층에서 민들레학교(무료한글반) 수료식 및 입학식을 진행했다. 포항YWCA에서 진행하는 민들레학교는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으며 초급반 증급반으로 나눠 배움의 즐거움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거제YWCA

심은옥 간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거제YWCA는 3월 5일(화) 거제YWCA 2층 다목적홀에서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실버선생님 매직쇼, EM환경지킴이,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아동시설지원사업, 취약시설 지원사업 총 5개 사업단에 참여하게 될 어르신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교육 및 업무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회원 DAY 넵킨아트 "나무상자 만들기"

김해YWCA는 2월 22일(금) 김해YWCA 민들레 강의실에



서 회원DAY 넵킨아트 "나무상자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회원 20여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김해YWCA에 대해 알리고 서로의 생각을 듣고자 기획되었고, 환경에 앞장서는 YWCA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마산YWCA

한혜경 부장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퍼포먼스



마산YWCA는 3월 8일(금) 마산YWCA 회관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분부를 비롯한 어린이집 원아,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창원시마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및 회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의류大바자회



사천YWCA는 3월 11일(월)~16일(토) 5일간 2층 강당에서 윤순영, 엘피메 패션 협찬으로 의류바자회를 진행했다. 바자

회 수익금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쓰여질 예정이다.

진주YWCA

김태진 팀장

이주민 한국어 교실 개강



진주YWCA는 2월 18일(월) 진주YWCA 회관에서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019년도 이주민 한국어 교실을 개강하였다. 한국어교실은 이주민 100여명이 해마다 1-5단계의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개강식에는 10여개국 출신의 이주민 40여명이 참여하였다.

진해YWCA

김자영 간사

3.1운동 100주년 행사



진해YWCA는 2월 28일(목) 경화역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민·청소년과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마련했다. 경화역에서 홈플러스 진해점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독립선언문을 나눠주어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를 가졌다. 진해YWCA는 올해 연말까지 '진해지역 항일 독립운동을 찾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산YWCA

정은정 간사

2019년 이사·실무자 워크샵

양산YWCA는 3월 16일(토) 양산스페이스나무에서 2019년 이사·실무자 상반기 워크샵을 가졌다. 이번 워크샵은 이사·

회원YWCA 소식



실무자의 영성훈련의 시간을 통해 YWCA운동의 목적을 재정립하고자 진행되었다. 이천진 목사님의 지도아래 이사·실무자 30명은 'YWCA 목적론 영성교재'와 '청년예수'를 통해 사명감을 고취시켰다.

창원YWCA

김진아 간사

실무활동가 워크숍



창원YWCA는 2월 28일(목) 창원YWCA 회관에서 연합회 박은실 국장을 강사로 초청, 본부와 부속시설 실무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YWCA의 역사, 목적문을 통해 기본 정신을 되새기고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통영YWCA

변은실 팀장

통영YWCA 실버한글교실 개강식



통영YWCA는 3월 5일(화) 통영YWCA 교육관에서 비문해 또는 저학력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버한글교실 개강식을

가졌다. 실버한글교실은 교육 기회가 없어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화, 목 2회로 진행되고 있다.

복부

서울YWCA

성지희 간사

회장 이·취임예배



서울YWCA는 2월 12일(화) 서울YWCA 강당에서 회장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4년 동안 수고한 조종남 전임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유림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조종남 전임회장은 이임인사를 통해 그동안 받은 사랑에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이유림 신임회장은 "서울Y의 모든 운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나라 운동임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YWCA

김다설 팀장

직무향상을 위한 살림돌보미 재교육



인천YWCA는 3월 7일(목) 인천YWCA회관에서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살림돌보미들의 직무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진행하였다. 1부 여는 예배로 시작되었으며, 2부에서는 조영숙 강사의 '맛있는 행복 반찬 들기' 교육이 진행되었다. 인천YWCA는 가정 내 돌봄과 살림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돌봄과 살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이·취임식



강릉YWCA는 2월 21(목) 세인트컨벤션 웨딩홀에서 15대 16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하였다. 강수는 부회장의 인도와 철목사(강릉Y지도목사, 중앙감리교회)의 말씀선포로1부 예배를 마치고, 2부로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속초YWCA

주미란 간사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속초YWCA는 3월 8일(금) 속초YWCA 로데오 황소 동상 앞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속초시 여성단체협의회와 속초 늘푸른회,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속초시지역회복지협의회, 속초YWCA 부속기관이 함께했다.

원주YWCA

김민영 간사

월천장학회 3.1절행사 특별공연



원주YWCA는 3월 1일(토) 원주 월천장학회에서 3.1 만세운

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1507주년 독도 대한민국 영토 기념식과 제19주년 청소년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 원주YWCA 어린이합창단의 특별공연이 있었는데, 합창단 어린이들이 3.1절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춘천YWCA

허현주 간사

제53회 정기총회



춘천YWCA는 1월 29일(화) 4층 강당에서 회원 850명중 출석 92명, 위임 5명 참석으로 제53회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서울 은누리교회 이기훈목사의 '성육신적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고 허미순 직전회장에게 공로패, 고해룡 의 3명에게 감사패, 직업개발부 모범회원에게 표창장 수여, 돌보미 자녀2명, 강원학사생 1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서부

광주YWCA

손유영 부장

3.1운동 100주년 3.1만세 대행진



광주YWCA는 2월 28일(목) 광주YWCA 회관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광주기독시민단체들과 함께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어 3월 1일(금)에는 광주지역 민·관이 함께 거리를 행진하며 5.18광장에 모여 기념식을 가졌다.

회원YWCA 소식

남원YWCA

장신화 간사

청소년 소비자 교육



남원YWCA는 2월 21일(목) 남원YWCA 회관에서 미래의 경제 주역인 Y-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구매의사결정과 안전한 인터넷물품거래 방법 등 소비자로서 알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창립 50주년 '민들레50+운동'



전주YWCA는 3월 14일(목)~3월 29일(금) 15일간 전주YWCA 회관에서 창립 50주년 비전사업으로 '민들레50+운동'을 펼쳤다. 3월 14일(목)에는 <가장 단순한 것의 힘>의 저자 탁진현 강사 강연, 21일(목)과 28일(목)에는 백효녀 한 국정리수납전문가협회장의 정리수납 강의, 29일(금)은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활동으로 마무리했다.

익산YWCA

홍진 간사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활동기록 중간점검



익산YWCA는 2월 2일(토) 포상제 활동 중인 초등학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활동기록 중간점검을 진행했다. 청소년자기도전 포상제는 만9세~13세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4가지 활동 영역에서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꿈을 찾아가는 자기성장프로그램이다.

군산 준비회

김은진 팀장

군산YWCA 준비회 선포식



군산YWCA 준비회는 3월 12일(화) 군산YWCA 준비회 5층 대강의실에서 준비회 선포식을 진행하였다. 선포식에서는 성공적인 군산YWCA의 재건을 위해 연합회 박은실 국장과 함께 군산YWCA 준비회 비전 수립을 위한 조직 이해와 2019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광양YWCA

이현숙 간사

3·8 여성의 날 기념 우리의 선언!!!



광양YWCA는 3월7일(목) 광양YWCA 회관에서 이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생존권과 평등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 온 수많은 여성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노력들을 되짚어 보고 YWCA 이사로서의 역할과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결혼이민여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목포YWCA 돌봄서비스사업단은 2월 25일(월)~3월 7일(목)



8일간 목포YWCA 강당에서 전라남도 서부권 결혼이민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총60시간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건강관리사로서 역할과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의 내용을 이수했다.

순천YWCA

이귀선 부장

동방과 함께하는 사랑의 정 나눔 행사



순천YWCA는 2월 7일(목) 순천YWCA가 위탁 운영하는 조곡무료급식소 해피누리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동방지부와 함께 '여럿이 함께하는 사랑의 정 나눔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어르신들을 위해 설 연휴를 맞이하여 영양맞춤 건강식단과 더불어 과일 등 푸짐한 한상을 제공했다.

여수YWCA

조은영 부장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여수YWCA는 3월 8일(금) 이순신 광장에서 여수여성복지

시설연합회가 주관하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미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제주YWCA

박슬기 간사

"제주여성! 당신은 여성이어서 행복하십니까?"



제주YWCA는 3월 8일(금) 제주시청 앞 어울림마당에서 제 11회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 행복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의 '제주여성! 당신은 여성이어서 행복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아이돌보미양성과정 개강



서귀포YWCA는 3월 11일(월)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2019년 아이돌보미양성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양성교육은 아이돌보미의 이해, 역할과 직업윤리, 아동 건강과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이돌보미 활동의 실제 등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되며 현장실습과정을 거쳐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

중부

대전YWCA

안소진 간사

시민학교 입학식

대전YWCA는 3월 4일(월) 4층 강당에서 2019년도 「대전YWCA 시민학교 한글교실」 입학식을 진행하였다. 시민학교 한글교실은 교육소외계층(비문해 및 저학력)에게 제2의

회원YWCA 소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한글 및 기초산수, 영어, 한자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세종YWCA

김영옥 간사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와 평화 나눔 교류



세종YWCA는 2월27일(수) 카자흐국립대학교에서 세종YWCA(회장 이기옥) 창립70주년과 3·1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청소년, 대학생, 여성들의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협약식과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세계기도일 예배



제천YWCA는 3월 8일(금) 명락교회(담임목사 이동성)에서 15개 교회 100여 명의 여성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는 주제로 2019년 세계기도일 예배를 드렸다.

청주YWCA

김광식 간사

옥상 햇빛발전소 개소식

청주YWCA는 2월 15일(금) 청주YWCA 옥상에서 청주



YWCA 옥상 햇빛발전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청주YWCA 옥상 햇빛발전소는 총 용량 40kW의 태양광 발전소로 건립되었다. 햇빛발전소를 통해 발생하는 발전 수익금은 희망편드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에너지 전환과 자립에 관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충주YWCA

이예림 간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충주YWCA는 2월 11일~12일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했다.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249명이 지원하였는데 최종 선발인원은 3월부터 9개월동안 활동을 하게 된다.

논산YWCA

조은숙 주임

YWCA 리더 자원활동가 교육

논산YWCA는 2월 7일(목) 2층 강당에서 이사·위원을 대상으로 자원활동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YWCA에 내가 왜 오는가?'를 주제로 'YWCA 목적문' 영성교재를 사전 연습하였으며 한국Y연합회 이천진 목사의 강의와 토론,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천안YWCA

강규희 부장

나도 독립운동가! 캠페인 실시



천안YWCA는 3월 1일(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에 천안시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가두 캠페인을 전개, “나도 독립운동가! 3·1운동 100년 범국민 대회의 주최자가 되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여성, 우리 -기독교여성주의 성경 읽기』

성평등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전개하는 YWCA,
이 책을 통해 여성차별과 여성혐오의 갑갑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여성의 힘과 역할을 성경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이야기, 기독교여성주의 성경 읽기란?

두번째 이야기, 여성, '창조질서'의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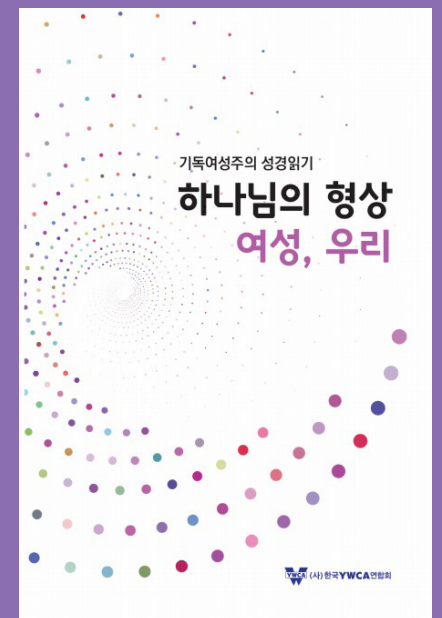
세번째 이야기, 여성, '언약의 주인공들'

네번째 이야기, 성서 속 여성 리더십의 모험- 질문하는 여성들

다섯번째 이야기, 예수와 함께 한 여성들

여섯번째 이야기, 초대교회를 일으킨 여성들

일곱번째 이야기, 성서, 교회 그리고 섹슈얼리티



교재문의 : Y아카데미위원회 02-774-9706
ywcaacademy@naver.com

Blog <https://blog.naver.com/ywcaemail>

YouTube [https://youtu.com\(검색어:하나님의 형상 여성, 우리\)](https://youtu.com(검색어:하나님의 형상 여성, 우리))

